

기재위 “국세청 고위직 40% TK출신”

환노위 “4대강 수질 악화 책임은 MB”

국감 현장

안행위 “대선때 사이버 적발건수 급감 선관위는 눈감고 있었나”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 전에 접어든 21일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4대강 사업의 적정성 등을 두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국회는 이날 안전행정부와 정부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12개 상임위원회로 국감을 벌였다. 특히 환노위의 한강과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차원에서 설치한 보(淤)의 철거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환노위=영산강유역환경청 등 4대강 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의 수질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은 4대강의 수질악화가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각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낙동강 수질 개선에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9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수질은 공업용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봉홍 의원은 “4대강 중 강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지만 점검인력은 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4대강 사업 이전에 발견된 법정보호종(별종위기종·천연기념물) 총 28종이 사업 후 대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생명과 파괴 산책사”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의 ‘낙동강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참수리, 황새, 뜰부기, 검독수리, 소쩍새, 쇠부엉이 등이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안행위=이날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이버 선거운동 관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지난 대선 당시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이어 최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관위에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 강기운 의원은 “국정원 문제의 경우, 일반인이 했으면 문제

되지 않겠지만 (댓글이나 트위터를 하는 일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공무원 선거 중립이 문제되는 것”이라며 “개인 의사 표출하는 데 있어 문호를 대폭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이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 모두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대선개입과 헌정을 파괴한 국가문란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후보자와 유권자의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감시보다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한 감시로 (주안점)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선관위의 사이버 적발건수가 지난 대선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다”면서 “눈 감고 적발을 안 한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기재위=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위직 인사의 대구·경북(TK) 지역 편중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 고위공무원(2급 이상) 34명 가운데 14

명(41.2%)이 대구·경북 출신”이라며 “이런 지역 편중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진행됐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의 지역인사 편중 문제는 다른 부처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세청의 인사편중은 조세행정의 잘못된 편중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세청 최약의 인사를 김덕중 국세청장이 했다. 향후에 빼고 이런 인사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청장은 “1급 승진 후보군의 경력, 역량, 보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고위직에 진입하게 될 본청 과장급 직원들의 지역별 균형이 상당 부분 이뤄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국민행복기금으로 은행 수익금 9000억” 강기정 의원

오는 2018년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사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9000여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부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이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

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말까지 총 10조8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할 예정인데, 여기에 회수율 15%를 적용하면 채권회수액이 1조620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사업비용 2700억원과 예상 인수원가 4500억원을 제하고 나면 수익 규모가 총 9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사는 강 의원에게 제출한 예측자료에서 채권회수액 9350억원, 예상 인수원가 6000억원으로 총 650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전남 교통안전수준 전국 최하위권” 주승용 의원

광주·전남지역의 교통안전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인 민주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17개 시·도의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7개 광역도시 중 2008~2010년

최하위, 2011년 6위, 2012년 5위(자동차 1만대 당 1.9명 사망)으로 최근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남지역도 2010년을 제외하고 4년 모두 최하위(17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만대 당 4.2명이 사망해 전국 평균(2.4명)에 비해 교통안전 수준이 매우 낙후된 것으로 조사

됐다. 주승용 의원은 “교통안전 체험교육시설 건립을 비롯한 재원 투자 확대를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고 국회에서도 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섬지역 고사 소나무 방치 2차피해 우려” 김영록 의원

진도군 조도면 등 도서지역에 병충해와 염해로 인한 소나무가 대부분 고사하고 있으나 이를 방치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은 21일 산림청에 대한 국

감사에서 “솔집갈기작벌레와 태풍 무이파로 인한 염해·풍해 등으로 숲 여기저기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소나무들이 고사하면서 주검 및 도로에 쓰러져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해송림과 소나무가 전부 고사

방치되면서 관매도 등 아름다운 풍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고사목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 산림조합 기능직은 모두 특채” 배기운 의원

지역 산림조합 기능직은 모두 특채로 채용되고 있어 인사규정 개정 등 특채 기준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은 21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산

림조합 중앙회 회원조합의 직원채용 현황을 보면 일반직 총 476명 중 42명(약9%)을 특채, 기능직은 150명 전원을 특채로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따르면 산림조합은 인사규정에서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과와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는 등의 채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으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산불진화용 소방대 건설은 예산 낭비” 김승남 의원

산림청이 산불진화 헬기의 취수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물 가두기 소방대’를 8곳이나 건설, 5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은 21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방적 5km 이

내에 저수지 등 취수원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물 가두기 소방대 건설사업을 진행했으나 실제 5km이내에 다른 취수원이 있는 저수지가 전체 43개소 중 8곳이나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당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사

방대에 대해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의 타당성 여부를 산림청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맨 오른쪽)을 비롯한 4대강 유역 환경청장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사정상 “매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평, 건물 480평, 신축건물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각 100평)
- ▶ 감정가/시세 - 23억원
- ▶ 임대 - 보증금 3억원에 월 1,400만원 예상(임대중)
- ▶ 대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 ▶ 매매가 - 22억원(조정 가능)
- ▶ 수입 - 5억원 투자에 월 840만원

주인직매 H.010-4667-9300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02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3.25%이하, 연39%이하
(연체 및 추가비용 없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2001호

돈

놀분/쓸분!

문의
010-3605-5000